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27~10.3)

1. 자민당 총재선 결과 관련 경제계 평가

- (①재정 확장-건전화 균형 기대) 다이와증권 이와시타 마리 치프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기시다 新총재는) 재정 건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코로나19 대응이 종식되면 건전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함.
 - 同인은 ‘기시다 新총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경제대책을 주장하는바, 기초적 재정수지의 2025년 흑자화 목표를 미룰 가능성’은 보이고 있으나, 재정확장과 건전화 중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다고 언급하며 재정 불안 등으로 장기 금리가 급상승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
- (②엔저 지속 예상)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사이토 유지 외국환율부장은 기시다 新총재가 총리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의 일본은행에 의한 금융완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엔저·달러 강세 트렌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 기시다 총재 본인은 엔화 약세를 강하게 지향하는 타입은 아니며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금융완화·재정출동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前 총무대신을 요직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향후 내각 구성에 주시가 필요
- (③경제 성장전략 제시 필요) PICTET 투자신탁 이치카와 신이치 투자고문은 ‘규제개혁 노선을 중시했던 고노 대신이 新총재로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에 그간 해외투자자가 일본주(株) 매입 움직임을 보여온바, 당분간은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라 언급함.

- 따라서 향후 중의원 선거 전까지 해외 투자자가 중시하는 성장전략 제시 가능 여부가 향후 일본주 움직임을 예측할 재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
- 커먼즈 투자신탁 이이 데쓰로 사장은 ‘기시다 총재가 내건 기업의 분기결산 공개 의무 폐지 검토 등도 기업이 단기 실적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기시다 총재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

2. 백신 승인 심사 재검토 개시

-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유럽·미국 대비 2개월 정도 늦었던 점을 계기로, 日 정부는 백신 승인 심사절차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본격적 검토를 시작할 예정임.
 -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내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바, 美 화이자는 해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임상을 별도로 진행한 후 승인을 취득
 - 국내 임상은 법률 개정 등은 불요하며 현재 제도상으로도 생략은 가능하나, 후생노동성 간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심사 속도 간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안전성과의 균형 우려

3. 日 후생노동성, 소트로비맵 승인

- 후생노동성은 일본 국내에서는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번째 코로나19 신약인 ‘소트로비맵’을 9.27 승인함.
 - 소트로비맵은 산소 요법이 불요한 경증·중등증 환자 중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 및 기저질환 보유자를 대상으로 발병 후 1주일 이내에 투여

- 현재 해외에서는 호주가 同藥을 승인한 바 있으며, 美 FDA도 2021.5 월 긴급사용허가 완료
- 다무라 후생노동대신은 9.27 승인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단에게 ‘(소트로비맙을) 새로운 치료의 선택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 고 언급했으며,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종적으로는 (입원환자 뿐 아니라) 왕진 시에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언급

4. 日, 3차 접종 원칙적 지자체 진행

- o 日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관련, 기업·대학 등에서 단체 접종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3차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냄.
- 고노 대신은 단체 접종을 받은 사람의 3차 접종에 대해 ‘백신 종류·접종 장소·접종일 지정 가능 여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고 언급
- 단, 3차 접종 시에는 기본적으로 2차 접종과 동일한 백신을 사용해야 하나 지역·대학 단체 접종에서 사용되는 모더나 백신과 지자체 접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이자 백신은 서로 보관 방법이 상이한바, 지자체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새롭게 접종 장소를 확보할 필요

5. 日 정부, 행동제한 완화 실증시험 개요 발표

- o (13개도부현 대상 실증실험 실시) 日 정부는 9.30 코로나19 접종증명 등을 활용한 행동제한 완화 실증실험의 개요를 발표, 13개 도부현*에서 음식점·라이브하우스·소극장·스포츠 이벤트를 대상으로 2021.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임.
- * 홋카이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아이치, 이시카와, 시가,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키나와

- 동 실험에서는 △음식점 내 5인 이상의 회식 및 영업시간 연장, △이벤트 입장 인원수 상한 초과를 허용하고, 백신접종증명 및 음성증명서 확인 원활 여부 등 운영면의 과제를 확인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점포명 및 극장명 등은 향후 공표

- o (도쿄도 재확산방지 조치기간 설정) 한편, 긴급사태선언이 10.1자로 전면 해지됨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감염방지책을 전제로 한 주류제공이 허용되나, 도쿄도는 선언 해제 후에도 10.24까지 ‘재확산 방지 조치기간’으로 두고 음식점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함.

- 도쿄 및 오사카는 ‘4명 이하의 회식’을 조건으로 두는 등 일정 정도의 자숙을 요구하고 있어 음식점 등은 현장 대응에 고심 중

[참고] 도쿄와 오사카의 감염방지책

시민 대상	- 외출은 적은 인원수로 하며 혼잡한 장소는 피할 것 - 현관 경계를 넘는 이동은 감염방지책을 철저히 할 것
음식점 및 결혼식장	- 주류 제공은 도쿄 오후 8시, 오사카 8시 반까지로 하며 오후 9시에 폐점 (행정 인증이 있을 경우) - 테이블당 원칙적으로 4인 이내 (결혼식장은 음식점 영업허가가 있을 경우)
이벤트 개최	- 수용 인원수 절반(상한 1만명). 고성을 동반한 관람이 아닐 경우 5천명까지는 수용 인원수에 상관없이 가능

6. 엔화 약세 및 日 주식시장 동향

- o (엔화 약세) 9.30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엔시세가 약 1년 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1달러=112엔대를 기록함.
- (원인)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장기금리가 0%에 가까운 일본과의 금리차가 확대되어 엔화 매도세가 심화
- SMBC닛코증권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한 엔화가 간단히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으며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관계자도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따라서는 1달러=114 엔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시장에서는 엔저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日 주식시장은 둔화) 엔화 약세는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의 국제 가격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재료로 인식되나, 닛케이 평균주가는 9.29일 3만 엔으로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 반응은 둔한 상태임.

- (원인)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급등, 감염확대 후 경제회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투자가의 일본주(株) 매입 위축의 배경

· 원유 등 국제 상품의 수입 물가가 급등시 수입된 원자재를 제품화 하여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익을 압박할 수 있으며, 일본의 수출 기업은 그간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해온 바 엔저에 의한 국제 가격 경쟁력 향상 이점이 약화

- 또한, 기시다 자민당 新총재는 수십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표명한바 있어, 주식시장은 동 경제대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규율이 해이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경계 중

7. 입헌민주당 에너지 정책 공개

○ (공약 구조 공개) 입헌민주당이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내세울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조가 공개됨.

- 에다노 유키오 대표 등은 2009.9월부터 3년 3개월간 계속된 舊민주당 정권 당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경험,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

○ (자민당과의 차이 강조)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차이를 두기 위해 현재 정부 목표를 상회하는 재생에너지 비율 인상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등을 명기하고,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脱탄소 사회 실현을 주창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2030년 기준 정부 목표는 46% 감축이나 입민은 이를 대폭 하회하는 55% 감축을 제시했으며, 2030년도 전원 구성 목표 중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는 36-38%인데 비해 입민은 50%를 제시

- 또한 입민은 원전 활용을 요구하는 재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민당 정권 하에서는 탈원전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원전 제로 및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을 호소하여 자민당과의 차이를 강조할 공산

8. 시오노기제약 코로나19 내복약 개발

○ (2021년내 제조판매승인 신청) 시오노기제약은 9.29, 최종 단계 임상을 시작한 코로나19 내복약*의 2021년내 제조판매승인 신청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1일 1회, 5일간 복용을 상정

- 2021.7월에 제1단계 임상을 시작한 이후 안전성에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아, 9.27일부터 경증자와 무증상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단계 임상 시작

- 임상은 해외에서도 시작할 예정으로 2021년 내 美 FDA 및 유럽 EMA 등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며, 미국 등에서 승인 전의 의약품 사용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긴급사용허가’ 취득이 목표

○ (생산 일정) 同社は 연내 생산을 시작하여 2021년도 공급 개시를 목표로 할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데시로기 사장은 9.29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2.3월까지* 최소한 국내에서 100만명분을 생산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닛케이)